

# 양육수당 도입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Public awareness of the introduction of childcare allowance*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 만0~만1세 영아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이 선진국형 복지제도로 발전하는 발판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입될 양육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가 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양육수당 본래의 목적을 다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본고에서는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및 그에 따른 행태를 분석하여 양육 수당이 그 정책적 목적을 다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서론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 만0~만1세 영아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은 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재가 양육을 선호하는 양육자를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양육 수당의 도입은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까지 재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장애아, 한부모 가정자녀 혹은 입양자녀와 같은 취약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양육수당은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이 선진국형 복지제도로 발전하는 발판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2009년 7월부터 도입될 양육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가 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양육수당 본래의 목적을 다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2009년부터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은 소득하위 50%까지 확대되는 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양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를 더하고 있

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차상위 이하의 소득 계층 영유아는 시설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반면, 차상위 계층이상 소득 하위 50%에 해당되는 영유아는 시설을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및 그에 따른 행태를 분석하여 양육 수당이 그 정책적 목적을 다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

아의 비율은 만0~1세가 각각 84.7%와 72.1%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어린 영아의 경우 대부분이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3~5세 유아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유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 선호하는 양상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만0~1세 영아의 경우 정부로부터 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는 비율이 각각 7.8%와 17.8%인 것으로 나타나 만2~4세의 약 30%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만0~1세 영아의 경우 보육료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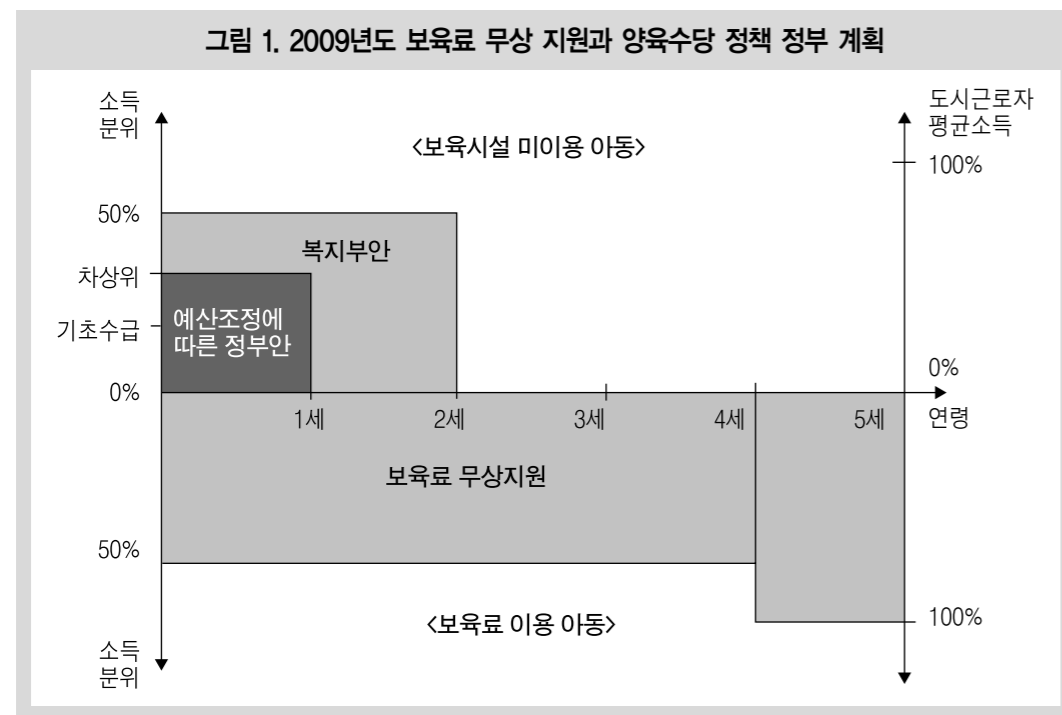


표 1. 영유아 연령별 육아지원시설 미이용 현황 (2007년)

(단위: 명, %)

연령	보육시설이용 (A)	유치원이용 (B)	영유아인구 (C)	시설미이용 영유아수 (D=C-(A+B))	미이용비율 (D/C)
만0세	68,908		449,027	380,119	84.7
만1세	122,663		439,640	316,977	72.1
만2세	222,258		449,410	227,152	50.5
만3세	237,919	93,005	476,281	145,357	30.5
만4세	207,305	170,726	490,314	112,283	22.9
만5세	179,562	271,326	527,610	76,722	14.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통계연보 2007, 통계청(2008)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표 2. 보육료 지원 영유아 현황 (2007년)

(단위: 명, %)

연령	영유아인구 (A)	시설이용 영유아수 (B)	지원영유아수 (C)	전체영유아대비 비중(C/A)	시설이용 영유아 대비 비중(C/B)
만0세	449,027	68,908	34,985	7.79	50.77
만1세	439,640	122,663	78,245	17.80	63.79
만2세	449,410	222,258	141,917	31.58	63.85
만3세	476,281	330,924	154,957	32.53	46.83
만4세	490,314	378,031	139,376	28.43	36.87

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의 현황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적인 특징을 살펴 볼 때 보육시설 이용 선택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첫째, 공공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양적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은 대기자 수가 넘쳐나는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시설 수는 공공보육시설보다 많으나 찾는 사람이 적어 심각한 경영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인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이 제공하는 질적 수준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하지만 정원이 마감되어 대기자로 남는 경우, 입소할 때까지 가정내에서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

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고 있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은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특별활동 교육비 등 정부 지원 외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문화적인 요인으로서 특히 영아의 경우 친인척에 의한 개인 양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만0세의 경우 조부모라고 응답하였으며(취업모 72.4%, 미취업모 67.1%), 만1세의 경우도 조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취업모 69.9%, 미취업모 64.2%)<sup>1)</sup>. 농어촌과 같은 취약지역의 경우 영아의 자녀를 시설에 맡기지 않는 이유로 보육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sup>2)</sup>.

### 3. 양육 수당 도입에 따른 시민 의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0~만5세 자녀 양육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양육 수당과 관련한 의식 및 행태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만0~5세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셋째아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면 보육료를 50% 감면해 주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유사한 형태라고 판단되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0~만5세 자녀 양육 여성을 양육 수당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집단으로 선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총 조사 대상 1,020명 여성 중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샘플수가 최소 30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였다<sup>4)</sup>. 조사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비취업여성의 비율은 양육수당 대상자 중 84.5%, 양육수당 비대상자 중 69.9%로 나타나, 비취업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육수당 대상자가 양육 수당 비대상자에 비하여 높았다. 막내 자녀의 성별은 양육수당 비 대상자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대상자의 경우 남아가 59.1%로 여아의 40.9%보다 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양육수당 대상자가 37세로 양육수당 비대상자의 35세보다 약 2세 더 높았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막내 자녀의 평균 연령이 2.3세로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막내 자녀의 평균 연령 2.8세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제외하고 응답 대상 자녀에게 한 달 평균 소요되는 의식주 비용은 약 2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 지원 대상 자녀와 비 대상 자녀간에 별다른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sup>5)</sup>. 월평균 가구소득은 양육수당 대상이 약 310만원으로 양육수당 비 대상의 337만원 보다 평균적으로 약 27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양육수당 대상자가 약 242만원으로 양육수당 비 대상자 220만원 보다 평균적으로 약 22만원 더 많은 생활비를 쓰고 있었다. 종합컨대, 양육수당 대상자들은 양육수당 비 대상자들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자녀가 많은 이유로 월평균 생활비는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

표 3. 응답자 특성 빈도 분석

(단위: %, 명)

		전체	양육수당대상	양육수당 비 대상
취업 여부	취업	25.8	15.5	30.1
	비취업	74.2	84.5	69.9
	계 (명)	100.0 (1,020)	100.0 (303)	100.0 (717)
결혼 상태	유배우	99.2	100.0	98.9
	이혼	0.6	-	0.8
	사별	0.1	-	0.1
	기타	0.1	-	0.1
	계 (명)	100.0 (1,020)	100.0 (303)	100.0 (717)
학력	중졸	1.0	1.0	1.0
	고졸	31.3	44.9	25.7
	대졸	62.6	51.2	67.6
	대학원 졸	4.8	3.0	5.6
	계 (명)	100.0 (1,020)	100.0 (301)	100.0 (717)
자녀 성별	남아	52.2	59.1	49.4
	여아	47.8	40.9	50.6
	계 (명)	100.0 (1,020)	100.0 (298)	100.0 (71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5) 본 조사에서는 응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녀에 대해 보육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의식주 비용으로 한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는가 질문하였다.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는 양육수당 대상자인 경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이며, 비대상자인 경우 막내자녀에게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이다.

표 4. 응답자 특성 평균 분석

(단위: 세, 만원, 명)

항목	구분	평균	최대	최소	대상자수
연령	전체	35.86	49	23	1,020
	양육수당대상	37.30	47	28	303
	비지원대상	35.25	49	23	717
자녀 연령	전체	2.66	5	0	1,020
	양육수당대상	2.34	5	0	303
	비지원대상	2.79	5	0	717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전체	28.32	210	2	1,006
	양육수당대상	27.36	100	2	303
	비지원대상	28.73	210	5	713
월평균가구소득	전체	328.91	1,000	0	959
	양육수당대상	309.99	1,000	0	284
	비지원대상	336.87	1,000	70	675
월평균 생활비	전체	226.82	800	40	1,006
	양육수당대상	242.45	800	50	300
	비지원대상	220.18	700	40	7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으로 보인다. 막내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두 집 단 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수당 대상 가정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이 더 많다고 해서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양육수당 대상자 분석

### (1)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양육수당 대상자들이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6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2.5%)”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의 가정 내 양육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어린 연령이며, 보육료 비용 문제와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역시 어느 정도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지적한다. 조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급액이 10만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수준의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이유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3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11.9
	보육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2.0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3.6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2.5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0.7
	기타	1.0
계 (명)		100.0 (3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 (2)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양육수당 대상자 자녀를 과거에 보육시설에 보낸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 대상자 중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보육시설에 보냈던 이유로 “보육료를 지원 받기 때문,”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를 비슷한 비율로 지적하였다.

과거에 보육시설에 보내다가 현재 보내지 않는 이유로는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니까”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2008년 이전에는 셋째아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다가, 2008년도에 와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50%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에 기인한다. 과거에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 받던 사람이 이제는 보육료의 50%를 본인 부담으로 지

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양육수당의 활용도

양육수당의 주 사용 용처에 대해 절대 다수인 82.8%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비의 일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월 10만원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육수당으로 받은 돈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으로 흡수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양육수당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6.2%가 “매우 도움됨” 혹은 “조금 도움됨”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양육수당을 받고 나서 그 전과 비교하여 더 좋은 양육을 제공하게 되었다는데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표 6.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과거 보육시설 이용 경험	보육 시설에 보낸 적 있다	12.5
	보육 시설에 보낸 적 없다	87.5
	계 (명)	100.0 (303)
보육시설에 보냈던 이유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28.9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26.3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1.6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13.2
	계 (명)	100.0 (38)
보육시설에 보내다가 안보내는 이유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나까	43.2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
	내가 키우는 것이 더 좋아서	27.0
	시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18.9
	보육시설이 멀리 있어서	2.7
	기타	8.1
	계 (명)	100.0 (3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의견을 보인 비율은 40.6%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며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양육수당 적정액수에 대해 43.2%가 "16~20만원"을 응답하였으며 38.6%가 "21~30만원"을 응답하였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 10만원을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10만원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는 양육수당은 자녀에게 적정한 양육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조사 결과에서 월 평균 자녀에게 지출하는 양육비 수준이 약 28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육수당

급여 수준은 이러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58.7%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고 응답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월 10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은 여성의 취업 의사를 저하시키는데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하는 수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될 경우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비율은 69%로 나타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육수당을 받을 때 직장을 포기할 것

표 7. 양육수당의 활용도: 양육수당 대상자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의 주 사용처	생활비의 일부	15.5
	아이의 양육을 위해	82.8
	내 자신을 위해	0.7
	기타	1.0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매우 도움됨	11.9
	조금 도움됨	34.3
	보통	27.4
	별로 도움되지 않음	24.8
	전혀 도움되지 않음	1.7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 제공	매우 그렇다	5.0
	그렇다	35.6
	보통	41.3
	그렇지 않다	16.5
	매우 그렇지 않다	1.7
	계 (명)	100.0 (303)
양육수당 적정 액수	10만원	2.0
	11~15만원	4.6
	16~20만원	43.4
	21~30만원	38.7
	31만원 이상	10.6
	기타	0.7
	계 (명)	100.0 (30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양육수당 액수는 44.5%가 30~39만원으로 응답하여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다. 월평균 영유아 자녀 양육비로 추정되는 월 23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약 13%의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월평균 영유아 자녀 양육비로 추정되는 23만원까지 양육수당 급여액을 확대하여도 여성들의 취업의사를 저하시키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6)</sup>.

3) 양육수당 비대상자 분석

(1) 양육수당 도입 시 가정에서 자녀 양육 여부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여성 중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에서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64.9%는 양육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수당이 도입될 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이 도입될 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40.9%)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4.1%)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겨우 6명에 불과하여 1%에 미치지도 못

6) 월 평균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김승권 외(2006)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월 평균 만0~만5세 영유아 1인에게 지출하는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21만원을 2008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임.

표 8.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58.7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3.9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9.8
	기타	7.6
	계 (명)	100.0 (3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9. 희망 양육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희망 양육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취업을 포기 하겠다	69.0
	취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	29.4
	기타	1.7
	계 (명)	100.0 (303)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수당 액수	20만원 이하	1.4
	20~29만원	12.9
	30~39만원	44.5
	40~49만원	6.2
	50~59만원	26.3
	60~99만원	5.3
	100만원 이상	3.4
계 (명)	100.0 (2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월 10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이 도입될 때 이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여성은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한편, 양육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63.4%)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9.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양육수당의 활용도

응답자의 대부분인 92.9%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은 60.8%로 나타났다. 80.1%가 양육수당을 받은 후에 더 질 좋은 양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양육수당의 적정 액수로는 16~20만원을 응답한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21~30만원을 응답한 비율은 25.7%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경우 월평균 1인당 자녀 양육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양육수당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표 10.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양육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양육 여부	예	35.1
	아니오	64.9
	계 (명)	100.0 (7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11. 양육수당 도입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 도입 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유	아이가 너무 어려서	40.9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4.1
	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2.3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2.4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9.5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0.8
	계 (명)	100.0 (2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12. 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변화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이 도입되어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3.0
	자녀 발달에 좋을 것 같아서	63.4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9.0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4.5
	계 (명)	100.0 (4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13. 양육수당의 활용도: 양육수당 비대상자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양육수당의 주 사용처	생활비의 일부	7.0
	아이의 양육을 위해	92.9
	내 자신을 위해	-
	기타	0.1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매우 도움됨	19.2
	조금 도움됨	41.6
	보통	20.5
	별로 도움되지 않음	17.4
	전혀 도움되지 않음	1.3
양육수당을 받은 후 더 좋은 양육 제공	매우 그렇다	33.9
	그렇다	46.2
	보통	16.9
	그렇지 않다	2.6
양육수당 적정 액수	매우 그렇지 않다	0.4
	10만원	5.3
	11~15만원	12.8
	16~20만원	42.5
	21~30만원	25.7
	31만원 이상	13.4
기타	0.3	
계 (명)		100.0 (7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희망하는 수준으로 양육수당액수가 지급될 때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53.4%가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4.2%가 취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양육수당 액수로는 31.3%가 30~39만원을 응답하였으며, 28.2%가 50~59만원을 응답하였다. 월 평균 영유아 자녀 양육비로 추정되는 월 23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10%에 못 미치는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하여 양육수당이 월 평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수준인 23만원으로 확대되어도 여성들의 취업 의사를 저하시키는데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보육료 무상지원과 양육수당 간의 형평성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무상 지원의 혜택은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되는 반면, 재가 양육에 대한 지원인

양육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양 제도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게 될 때는 무료로 보낼 수 있으나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가정을 제시하고 관련된 양육 행태 및 시민 의식을 분석하였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무상으로 보육

#### (3) 취업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취업시 양육수당을 포기하고 직장을 선택하겠다는 질문에 대해 12.8%에 해당하는 여성들만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거나(64.3%)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18.7%) 직장을 다니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취업 시 양육수당 포기 및 직장 선택 여부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64.3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겠다	12.8
	아이를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	18.7
	기타	4.2
	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15. 희망 양육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희망 양육수당 수령시 취업 포기 여부	취업을 포기 하겠다	53.4
	취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	44.2
	기타	2.4
	계 (명)	
직장을 포기하기 위한 자녀 1인당 양육수당 액수	20만원 이하	3.1
	20~29만원	9.7
	30~39만원	31.3
	40~49만원	8.4
	50~59만원	28.2
	60~99만원	7.6
	100만원 이상	11.7
	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료를 지원 받지만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80.8%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9.2%가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51.2%)가 과반수 의견

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보육료가 무료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이 26.3%라는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 보육료 무상 지원에 해당하지만 양육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다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보육료가 무상 지원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는 집안에서 충분히

돌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양육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 질 때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는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겠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제시한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46.9%)”와 같은 자녀의 특성에 기인한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32.1%)와 같은 개인적인 선호, “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17.3%)와 같은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었다.

양제도간의 대상자 불일치에 대해서는 약 8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4. 양육수당 정책의 방향성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및 양육 행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도입될 양육수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양육수당 정책은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고자 마련되었다는 정책 도입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

표 16.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양육 행태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보육료 무상지원 및 양육수당 부재시 양육 행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낸다	80.8
	집에서 키운다	19.2
	계 (명)	100.0 (1,0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17.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료가 무료니까	26.3
	보육시설에 보낼 나이가 되어서	51.2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서	17.4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서	4.9
	기타	0.2
	계 (명)	100.0 (8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표 18. 집에서 키우는 이유

(단위: %, 명)		
항목	구분	비율
집에서 키우는 이유	아이가 너무 어려서	46.9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좋아서	32.1
	시설 서비스를 믿을 수 없어서	17.3
	집 주변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2.6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하니까	1.0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
	계 (명)	100.0 (1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된다.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녀의 연령이 어리거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라고 응답하였으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2009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될 때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일부러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은 자녀의 연령이 어려 보육시설에 보내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을 희망하는 여성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육수당은 가정 내에서의 자녀 양육의 질 향상이라는 합목적적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양육수당을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는 것처럼 양육수당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때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양육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양육수당 급여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 월 평균 자녀 1인당 자녀 양육비는 약 2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양육수당으로 약 28만원에 근접한 수준을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받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급여액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여 향후 양육수당 급여액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은 여성의 취업 의향을 저하시키는데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월 평균 영유아 양육비로 추정되는 23만원까지 양육수당 급여액이 확대



되어도 여성의 취업 의향을 저하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혹은 대리 양육자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겠다고 응답하였다. 양육수당 대상자의 경우는 취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는 양육수당 대상자가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여성으로서 양육과 가사로 인한 부담이 많은 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30~40대 기혼 여성 중 셋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약 10%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양육수당 도입시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희망하는 수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될 경우, 적지 않은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노동 시장 환경의 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노동인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고 있고 임금 수준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액수 만큼 양육수당이 지급될 때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재의 직장을 포기하

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여성 고용 상태의 향상 측면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고 일하게 된다면 아무리 높은 금액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어도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보육 시설 서비스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정책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과 양육수당 대상을 일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대로 보육료 무상지원 대상과 양육수당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가수요는 비취업, 저학력, 저소득 여성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 제도간의 비형평성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론**